

대행 스님

죽으러 가는 사람이 이것 참견하고 저것 참견할 수가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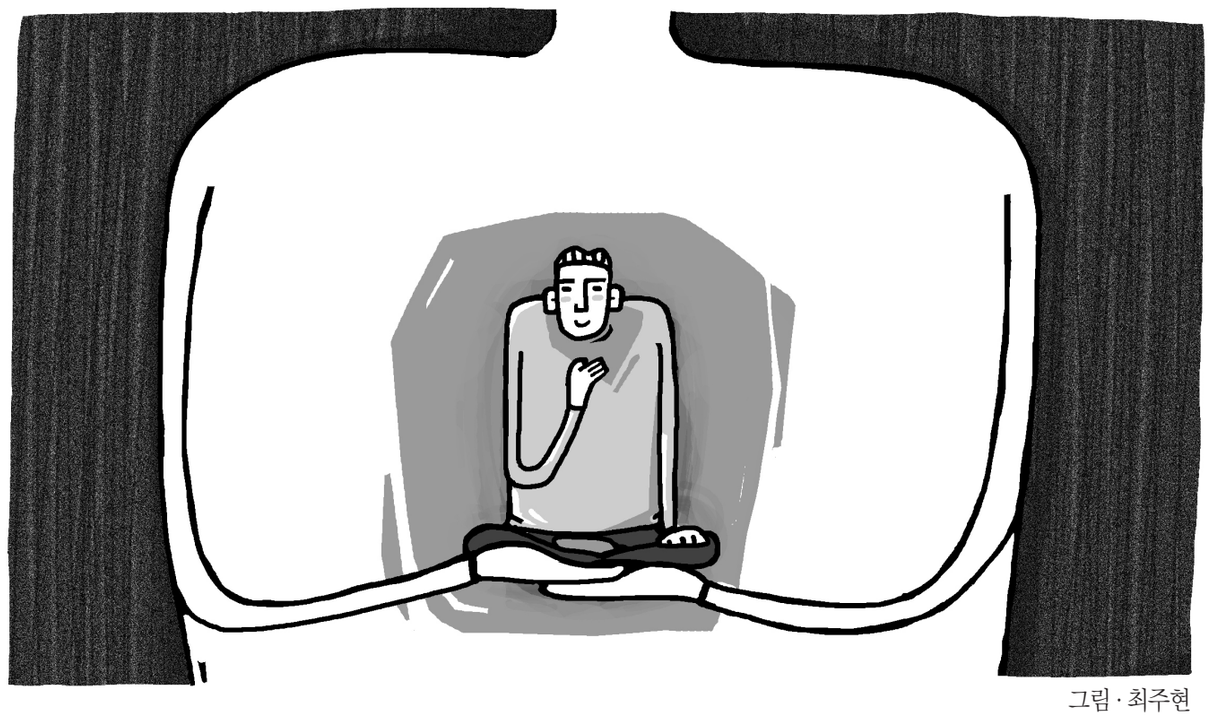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병고에 대한 두려움 극복하고 싶어요

질문 보왕삼매론에도 "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병으로써 양약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만 육신의 병에 대한 두려움은 쉽게 떨쳐버리기 힘듭니다. 특히 요즘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병고가 닥치더라도 두려움 없이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여러분들은 어디가 아프다 이런다면 그저 그 아픈 것만 생각하고 야단법석들을 하는데, 또 어디가 무너졌다 그러면 무너진 것만 가지고 법석들을 하는데, 지금 시급한 게 뭡니까. 그 무너짐과 병세 어떠한 문제들이 다가오는 거보다 더 시급한 게 바로 벗어나는 게 시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병 증세나 어떠한 걸 가지고 그거를 방편을 삼아서 공부해라." 이런 것이죠. 모든 게 자기가 지어 놓고 자기가 모든 거를, 인과성이나 유전성이나 다 자기가 가져 있는 거니깐 '너만이 알아서 할 수 있어!' 그러곤 다 버리라니깐 안 버리고 오히려 그냥 그거 낫게 하는 것만 가지고 야단이거든요. 하나가 없어지면 둘 셋이 다 없어지는데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약사보살이다 관세음보살이다 지장보살이다, 왜 이름을 내놨겠습니까? 그 관리인들의 이름은 이름일 뿐이지, 여러분들도 다 거기다 한데 합쳐 놓으면 보살이나 중생이나 둘이 아니다 이겁니다. 모든 게 부처와 둘이 아니로 되는 거다. 둘이 아닌 까닭에 의식들의 그 인과성도 병 증세도 그냥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먼저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병부터 생각하니까, 나빠진 것만 생각한단 말입니다. 인생은 짧고 벗어나기는 긴데 어떻게 이것을 처리해야 하느냐. 그 처리는 한생각밖에는 없습니다, 한생각! 이렇게 살아도 한 인생, 저렇게 살아도 한 인생입니다. 이렇게 살면 어떻고 저렇게 살면 어떻습니까?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말입니다, 모두 사람들이 우글우글해도 사람이라고 곤충하고 뭐 다른 게 있으며 벌레하고 뭐 다른 게 있으며 짐승하고 뭐 다른 게 있느냐. 모습만 천차만별로 다를 뿐이다. 모두 이 몸 자체 속에다가 곤충을 넣어 놓고 그것이 제가끔들 돌아서 제가끔들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사람들이 이러고 사니까 그것마저 쫓아서 그렇게 하고 살다 보니깐 못된 병이 생기고 그러는 거죠. 벌써 곤충들이 싸움이 나서 서로 잡아 죽이면 죽이는 쪽이 그냥 굳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사태를 모두 알고 이걸 대치를 해서 지내면서, 사는 것도 좀 유유하게 좀 편리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마음의 조작이지 육체의 조작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부터 육체는 움죽거리게 돼 있으니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태어나기 이전의 자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태어나기 이전 자기는 정신계의 자기고, 정신계의 자기가 지금 현실에 보이는 물질적 세계를 형성시켜서 놓은 자체거든요. 그런데 자기 나무가 자기 뿌리를 어떻게 무시하겠습니까. 병이 낫고 안 낫고 일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거는 자기한테 그대로 보배로서 있는 건데, 그거를 진짜 알아서 우리가 둘 아닌 도리, 내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거를 알고 '낫게 하든지 낫지 않게 하든지, 둘이 아닌 까닭에 너만이 할 수 있지 않아. 지켜 주는 것도 너고, 이끌어 주는 것도 너고, 해결사도 너고, 죽이는 것도 너고 살리는 것도 너야. 너만이야. 너만이 있어. 너만이 함이 없이 할 수 있고, 너만이 보이지 않으면서도 보이게 할 수 있고…' 지금 보이는 나와 안 보이는 너가 둘이 아닌 까닭에 항상 내가 보이면 자기도 보이고 내가 안 보이면 자기도 안 보이고,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렇게 밀접하게 돼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어떤 때 들어 보면 아주 얼토당토않은 그런 말씀들을 하거든요.

어떤 분은 어디가 어떻다고 어떻다고, 이렇게 그냥 치명적인 말을 병원에서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여기 온 지 얼마나 됐느냐?" 하고 물으니까 3년이나 4년 됐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됐다면 이렇게 되지도 않았을 텐데 어찌 그래?" 그러면 씽긋이 웃으면서 "오기는 그렇게 왔으나 몇 번 오지는 않았어요." 이러는 겁니다.

마음공부 하는 이 도리는요, 한 번 인연을 만나는 게 천 년에 한 번 만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 마음공부 하는 게. 이 옷 벗고 옷 속의 그 곤충의 세계를 다 벗어 버리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이 말입니다. 항상 그 보기 흉하고 그런 곤충 속에서 우리가 헤어나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부처는 못 된다 하더라도, 비천상 보셨죠? 날아다니면서, 금비까빈가 은비까빈가, 그런 것처럼 그저 이것도, 이 모습으로도 됐다가 저 모습으로도 됐다가, 이거를 건지려면 이 모습으로도 되고 저거를 건지려면 저 모습으로도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선 다 건지고 가지 않습니까.

하여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몸속에 들어 있는 곤충들도 자기 모습이니까 모든 거를 다 벗어나기 위해서는 꼭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둘이 아니에요. 나는 그 참, 보이지 않는 데 어떠한 귀신이다, 어떠한 신장이다, 어떠한 뭐다 하더라도 겁 안 나는 게 뭐냐 하면 산 사람도 산 귀신이에요. 허허허. 죽은 사람은 죽은 귀신이고요. 그런데 산 귀신이 더하지 죽은 귀신이 더하겠습니까? 그런데 죽은 귀신이나 산 귀신이나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귀신은 귀신끼리 해결을 하는 거죠. 항상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인공에다 모든 걸 맡겨라 이런 거예요.

정신계에서 귀신같이 노는 거는 전부…, 이거 보세요. 공에다가 그냥 모두 집어넣으면, 공을 집어넣으면 뭐가 남습니까, 거기. 공에다 공을 집어넣는데 그 얼마나 빨라요, 글쎄. 사람들이 그냥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그까짓 거 한 번 죽지 두 번 죽느냐. 너 있으면 나 있고 나 있으면 너 있고 모두가 둘이 아닌데 말입니다. 세울 것도 없고, 찾을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알 것도 없고 모든 게 그런데 뭐가? 모두가 둘이 아닌데 이 컵과 컵이 둘이 아니라면 한 컵이, 자기 컵 하나가 자기 컵을 깨트리겠습니까? 마주쳐야 깨트려지지. 그걸 명심하세요.

남은 인생 잘 회향하고 싶습니다

질문 젊었을 때는 살아가는 데에 정신없어 제 인생을 살필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 퇴임하고 시간이 여유가 생기니 비로소 제 인생길을 돌아보게 됩니다. 비록 살림은 좀 곤궁하겠지만 이제 마음공부를 열심히 해서 제 남은 인생을 잘 회향하고 싶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옛날에 어느 딸이 소를 몰고 나갔어요. 근데 소를 몰고 나간 딸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안 들어오니까 어머니는 부엌에서 그냥 화가 나서 발발발발 뛰는데 아버지는 그러거든요. "나갔으면 소를 다 처리했겠지, 뭘." 하더랍니다. 그래서 딸이 들어왔는데 그냥 맨손으로 그냥 터덜터덜 들어왔어요. 그래서 "왜 소는 안 가져 왔느냐?" 그러니까 딸이 하는 소리가 "네 기둥을 매고선 네 발을 묶어 놓고 그 가운데다 불을 질러서 구워서 동네방네 사람들하고 다 구워서 잘 먹었습니다." 이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안 가죠?

그 아버지 따라서 벌써 딸은 깨침이 있었단 얘깁니다. 그 어머니도 깨우쳐 주려고 그렇게 해도 어머니는 아둔해서 영…. 그러니깐 그냥 펄펄 뛰고 그 소를 얼마를 주고 샀는데 그 소를 갔다가 다 구워서 동네방네 사람들을 다 먹였느냐고 야단을 하죠. 그러니까 딸이 있다 하는 소리가 "나도 없고 소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데 뭘 그렇게 야단을 하십니까. 어차피 소 한 마리 가지면 동네방네가 다 먹어야, 즉 말하자면 이 세상이, 삼세가 다 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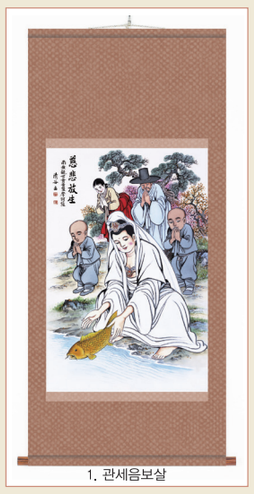
☞ 22면으로 계속

전통예술 | 자체제작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법고
법당천도법고
태 징
목 어
서 울
서울시 종로구 돈화문로 11길 12
02)3673-3442,764-2159
010-5264-3906
경기도
경기도 하남시 산곡북로 49-50
031)793-3906
010-5264-3906
계좌번호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 www.yangjikukak.com

"복과 지혜를 구하십시요"

달마도와 포대화상도, 나한도, 동자승 등 수많은 불교그림들을 그려온 청곡 이한동 화백님의 작품을 집안에 모셔두면 그림에서 발산하는 기운은 가정을 평화롭게 하고 가족의 건강과 어려운 일들을 순조롭게 풀어줄 것이며 만사가 형통할 것입니다.

길이 110㎝ 폭 54㎝ 가격 100,000원이며 두점이상 구입시 90,000원
나한도를 구입하시는 분에게는 16나한이나 18나한도의 설명서를 드립니다.



1. 관세음보살



2. 16나한



3. 황룡나한 / 복호나한

一切衆生皆有佛性 (일체중생개유)

1. 불성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자비와 방생은 불자라면 누구나 지녀야 할 기본성품이며 관세음보살께서 방생하는 모습은 사부대중 모두에게 귀감이 될 것이다.
2. 나한은 아라한의 준말이며 그 중에서도 16나한은 가장 대표적인 나한이다. 나한은 해탈과 신통력을 두루 통달하였고 더 이상 열반에 들지 않고 영생을 누리며 많은 권속나한들과 함께 세상의 여러곳에 거처하며 불법을 수호하고 중생들의 복전이 되어 줄 것이다.
3. 황룡나한과 북호나한은 16나한과 함께 18나한으로 그려지기도 하며 황금색룡을 타고 다니며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에게 복을 전해주는 황룡나한과 들어온 복을 지켜주고 삼재를 소멸하여 중생에게 수호신이 되어주는 복호나한 두분나한을 모셔두면 집안이 만사형통하여 하시는 사업과 자녀의 진학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이다.



▣ 수강생 모집

청곡 이한동 화백님의 그림을 배우고 싶으신 분은 현불샵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 거리라고 하는 서울 인사동에 미술 교육관을 개설하여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주2일 월8일 동안 그림강의를 합니다. 수강료는 월10만원이며 그림 내용은 산수화, 풍속화, 달마도, 동자승 등을 지도하며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TEL.02)2004-8216 /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